

싱그러운 봄 햇살 속 함께 걸으며 '행복한 힐링'

본보 '제26회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시청-광주천변길 일원 왕복 5km 코스
가족 사랑 느끼며 1시간여 '걷기 동행'
체험 프로그램·축하 공연 즐거운 한때
푸짐한 경품 선물 참가자들 '함박웃음'

제26회 광주매일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사랑 걷기대회(이하 걷기대회)가 지난 4일 오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9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화보 5면·관련기사 7면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육상연맹과 광주매일신문이 주관한 걷기대회는 오전 9시 광주시청 앞 야외음악당에서 개회식과 함께 광주천변길 일원 왕복 5km 코스로 진행됐다.

화사한 봄 기운 속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족 단위 참여가 눈에 띈 걷기대회에서는 페이스 페인팅·풍선아트, 석고방향제·모루인형 만들기, 슈팅글스 메달·팬시 꾸미기, 캐리커처·명함 드로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태권도 시범, 마술 공연 등 부대행사와 특별 축하무대가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새 봄 힘차게 가지개를 걷 참가자들은 이정환 광주시육상연맹 부회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비가 그친 뒤 싱그러운 봄 햇살을 맞으며 야외음악당을 출발, 벚꽃이 만개한 광주천변 일대를 걸으며 가족사랑을 확인하고 건강도 챙기며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만끽했다.



“다 함께 출발” 지난 4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과 광주천변 일대에서 펼쳐진 '제26회 광주매일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사랑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출발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시민들은 광주천 둔치에 만개한 벚꽃 길을 걸으며 봄날의 여유로움을 만끽했다. /김애리 기자

며 가족사랑을 확인하고 건강도 챙기며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만끽했다.

참가자들은 기념품과 생수는 물론 걷기대회 행사를 마친 후 행운권 추첨을 통해 TV, 믹서기, 가족사진 촬영권 등 푸짐한 경품을 선물받았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 걷는 길이

아닌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온기를 나누며, 바쁜 일상 속에 잠시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축복의 자리”라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부모님의 든든한 뒷모습이 아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야말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뿌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이사는 “특히 올해 걷기대회는

지역 역사에 있어 매우 뜻 깊은 시기에 열려 의미가 새롭다”며 “전남광주특별시는 하나의 이름 아래 오랜 시간 나누어져 있던 우리가 행정 통합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지금,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맞추는 발걸음은 곧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행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걷기대회에는 마천호 광주매일신

문 부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시)·정진욱(광주 동남구)·안도걸(광주 동남구)·조인철(광주 서구)·정준호(광주 북구)·전진숙(광주 북구) 국회의원, 신정훈·민형배·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경선 기호 순), 이정선·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김이강 서구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희중 기자

김영록 vs 민형배 '결선 빅매치' 성사



5일 광주 남동5·18기념성당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록·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6·3 지방선거 D-58

민중 통합특별시장 본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과 김영록 예비 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간 1대1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관련기사 2·3면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에서 기호 1번 신정훈 국회의원, 기호 2번 민형배 국회의원, 기호 5번 김영록 예비후보가 3자 대결을 벌인 결과, 과반

과반 득표 없어 12-14일 결선 최종 승부
신정훈, 妻과 단일화·네거티브 전략 실패
후·妻 '캐스팅보트'...연대 후보 놓고 촉각

득표자가 없어 다득표 2인인 민형배·김영록 후보(기호 순)가 결선투표 진출자로 확정됐다. 신정훈 후보는 탈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3·5일 사흘간 국민참여경선(원리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했다.본경선 결과는 경선 막판 재편된 '3강(強) 구도' 속에서 예견된 결선 시나리오가 현실화한 것

으로 분석된다.당 규정상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구조인 만큼 후보 간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 경쟁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이어졌고 결국 최종 승자는 결선으로 가려지게 됐다.

신정훈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와의 단일화를 통해 3강으로 발돋움하며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형세로 전환시킨 바 있다.

신·강 후보의 단일화는 경선 판세를 흔든 주요 변수로 주목받았지만 신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자리했던 민형배·김영록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신 후보는 김 후보를 상대로 서울 자택 문제와 도정 평가 등을 고리로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며 존재감을 부각하려 했으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데 실패했다.

결선 투표가 민형배 후보와 김영록 후보간 빅매치로 성사되면서 정책 비전과 조직 기반, 지역 내 지지세를 앞세운 치열한 최종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결선 투표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신정훈·강기정 후보가 '캐스팅보트'를 쥐는 가능성이 높아 민·김 후보 중 누구와 연대할 지 여부가 승패를 가를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강 후보의 조직과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결선 판세가 급변할 수 있는 게 지역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결선 투표 역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오는 12-14일 사흘 간 진행된다.

결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민·김 후보 양측은 탈락 후보와의 연대를 통한 지지층 결집은 물론, 부동·중도층 흡수에 총력을 쏟으며 막판 세 걸집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뭇발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